

속 기록

- 회 의 명 : 제 389차 위원회 전체회의
- 일 시 : 2025. 1. 24(금) 10:06 ~ 12:18
- 장 소 : 나주 본관 3층 대회의실, 온라인 줌
- 출석위원 : 정병국 위 원 장
구문모 위 원
김미라 위 원
김진각 위 원
배은주 위 원
서승미 위 원
왕치선 위 원
장미진 위 원
이훈경 위 원
정갑영 위 원
- 불참위원 : 성기숙 위 원
홍성태 위 원

1. 성원 보고

정병국 위원장 : 제389차 위원회 전체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김효은 노동조합위원장이 근로자 대표로 참석하였고 회의 운영의 투명성과 제언 관리 효율성을 위해서 기획조정팀 김영일 차장을 포함한 사무처직원 20여 명이 온라인으로 참관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회의 성원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송시경 사무처장은 성원 여부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시경 사무처장 : 예. 위원 12인 중에서 10인이 참석하셔서 성원이 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2. 개회 선언

정병국 위원장 : 예. 보고를 받으신 대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9차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전체회의 개회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정병국 위원장 : 오늘 전체회의에는 사무처 운영규정 개정(안), 문화예술진흥기금 중기사업계획(안), 2025년 인바운드국제협력강화 공모계획(안) 등 의결안건 3건과 보고안건 4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3. 전차(前次) 회의 결과

정병국 위원장 : 왕치선 위원님과 장미진 위원님은 워크숍에 함께하지 못해서 좀 아쉽고요. 장미진 위원님은 빨리 건강을 회복하시고요. 왕치선 위원님께서도 부군께서 빨리 회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송시경 사무처장은 전차 회의의 주요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시경 사무처장 : 예. 회의자료 3쪽입니다. 2024년 12월 27일에 개최한 제387차 전체회의에는 의결안건 13건이 상정되어 모두 원안 의결되었고요. 1월 3일 서면으로 개최한 제388차 전체회의에는 의결안건 2건이 상정되어 원안 의결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4. 의 결 사 항

정병국 위원장 : 예. 그러면 지금부터 의결사항 심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번호 제1104호 사무처 운영규정 개정(안)입니다. 본 안건은 김성범 기획조정팀장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성범 기획조정팀장 : 안건번호 1104호 사무처 운영규정 개정(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처 운영규정 개정 의결을 요청드리고자 본 안건을 상정했습니다.

사무처 운영규정은 아시는 바와 같이 기본규정으로 위원회 의결을 통해서 확정되게 되어 있습니다. 지난 12월 위원회 전체회의 의결을 통해서 기관 중장기 전략이 새로 수립되었고 이에 대한 실행력을 제고하고 또 지난해 2월에 사무처 조직 개편 이후에 대내외 환경과 여건이 변화함에 따라 이에 대응하기 위한 사무처 조직을 일부 개편하고자 본 안건을 제안드립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 페이지에 조금 더 상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관련 근거는 사무처 운영규정으로 위원회 의결을 통해서 확정된다는 것이 관련 근거입니다.

지난 중장기전략은 4가지 전략목표로 문화예술의 창의성 발현, 문화예술의 매력 국민공유, 문화예술의 가치 공감과 지지 그리고 선진형 예술위원회 경영모델 확립을 전략목표로 설정했습니다. 앞에 사업 관련 3가지 전략목표는 각각 창작, 향유, 가치 확산 등 3가지 사업으로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이를 고려해서 조직도 이에 맞춰서 일부 조정하기로 했고 뒤에서 조금 더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래는 현 조직현황입니다.

현재 조직은 작년 2월 1처 5본부 1실 16팀으로 세팅이 되었고, 그보다 전 조직이었던 조직도는 1처 6본부 1실 20팀이었습니다. 당시에 1본부 4팀을 줄여서 슬림화를 한 바가 있습니다. 본 안건에서도 그 기조에 맞춰서 일부 조정 정도의 개편(안)을 보고 드리는 것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일부 본부 내 팀을 재배치하고자 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예술지원본부는 현재 대예술가 창작지원 공모사업 형태의 업무를 주로 추진하고 있고, 문화기반본부는 대국민 기획사업 형태의 업무가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대국민 기획형 사업 중심인 인문정신확산팀이 예술지원본부에 그리고 대예술가 공모형 사업 중심인 예술인재양성팀이 문화기반본부에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를 조정해서 예술인재양성팀을 예술지원본부에 그리고 인문정신확산팀을 문화기반본부에 배치해서 그 사업의 성격을 맞추고자 합니다.

아래 팀 간 업무조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부 팀 간 업무조정에 따라서 사무처 운영규정에 있는 조직의 명칭이 변경될 사항이 있어서 같이 포함했습니다.

현재 정책연구는 예술정책·후원센터에 업무가 배치되어 있습니다. 한편으로 기획조정팀은 전략 수립 등의 기획 업무와 신규, 증액사업 개발 등의 예산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데 이를 기관의 정책연구 기능과 결합해서 시너지를 내기 위해 정책연구 기능을 기획조정팀으로 재배치하고자 합니다. 그렇게 되면 예술정책·후원센터의 주요 기능이 후원 기능과 홍보 기능으로 더 콤팩트하게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현재 예술가의집 운영은 예술인재양성팀에서 수행하고 있는데 해당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기획사업 등을 후원 기능과 연계하기 위해서 예술가의 집 운영을 현재 예술정책·후원센터로 이관하고자 합니다. 그렇게 되면 우선 예술정책·후원센터에서 정책 기능이 빠지게 되기 때문에 이름을 변경해야 되는데 현재는 가칭으로 ‘예술홍보·후원센터’로 변경을 해 봤습니다.

그리고 기획조정팀에서 하고 있던 기금운용 업무는 작년 말에 보고를 드렸던 것처럼 이관이 되면서 경영지원팀에서 지출업무와 일괄 관리하는 것으로 조정해서 기금운용 관리는 기획조정팀에서 경영지원팀으로 이동하는 것으로 안을 만들어 봤습니다.

다음 페이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제 개정이 되는 내용은 사무처 운영규정 제6조의 조직과 해당 규정 별표 제2호 한국문화예술위원회 기구표입니다. 조문 변경은 다음 페이지 참고1에 그 내용을 담았고요. 별표 제2호도 설명을 드린 내용으로 새로운 조직도의 그림을 붙임과 같이 만들었습니다. 2월 중에 이 조직개편에 대해서 확정이 되면 2월 중에 인사배치 등이 이루어지고 3월 4일부터 본 조직을 시행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참고2는 부서별 업무분장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내용들이 담겨 있기는 한데 해당 내용은 사무처 운영규정 시행세칙으로 위원회 의결권이 아니라서 오늘 올리지는 않았고요. 오늘 사무처 운영규정으로 조직이 확정되면 사무처 운영하는 규정심의위원회에서 다시 업무분장을 해서 세부적으로 추가 변동이 될 수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병국 위원장 : 예. 본 안건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의견이나 질의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각 위원 : 직제가 개편되면 예술정책·후원센터를 ‘예술홍보·후원센터’라고 변경하는 안인데요. ‘예술홍보·후원센터가’가 맞나요? 아니면 ‘예술후원·홍보센터’가 맞나요? 그러니까 어느 쪽에 업무의 중심을 두느냐에 따라서 조금 변동될 여지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예술후원·홍보센터’가 맞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좀 논의가 필요하지 않을까요?

정병국 위원장 : 의견들을 주시죠.

정갑영 위원 : 자구상으로 보면 ‘예술홍보·후원’은 예술을 홍보한다는 것처럼 보일 수 있으니까 ‘예술후원·홍보’라고 하는 게 지금 개정하는 취지에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네요.

정병국 위원장 : 그러면 ‘예술홍보·후원센터’가 아니라 ‘예술후원·홍보센터’라고 하는 게 더 낫겠다는 말씀이시죠? 다른 의견 없으신가요? 그러면 본 안건은 위원님들의 의견에 따라서 ‘예술홍보·후원센터’를 ‘예술후원·홍보센터’로 수정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정병국 위원장 : 다음 안건은 제1105호 2025-2029년 문화예술진흥기금 중기사업계획(안)입니다. 이어서 김성범 기획조정팀장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성범 기획조정팀장 : 본 건은 2025-2029년 문화예술진흥기금 중기사업계획(안)을 정부에 제출하기 전 위원님들께 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결을 요청드리는 안건입니다.

국가재정법 제66조에 따라서 기금관리주체는 매년 1월 31일까지 해당 회계연도부터 5 회계연도 이상의 기간 동안 중기사업계획서를 기획재정부로 제출해야 됩니다. 이에 따라서 오늘 중기사업계획 의결을 제안드리게 되었습니다.

먼저 중기사업계획에 대해서 먼저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중기사업계획은 말씀드린 것처럼 법에 따라서 의무 제출해야 건이지만 실제 차년도 예산 반영에 직접적인 영향력을 주거나 구속력을 주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에 대해 의무제출을 하고 있지만 특히 올해는 지난달에 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결이 된 우리 기관의 새로운 중장기전략 방향에 맞춰서 각 팀의 신규 사업 발굴, 지원 사업 개선을 요청했고 이를 반영해서 모은 내용들을 보고 드리는 안건으로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다음 페이지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2025년 우리 기관의 사업비는 총 4,339억 원인데 중기사업계획으로 2026년에는 5,733억 원을 편성했고 이렇게 2029년까지 매해 13%씩 증가하는 예산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주요 신규 증액 현황을 말씀드리면, 중장기전략 방향에서 강조했던 창작의 결과가 국민에게 연결되는 접점을 만들기 위한 아이디어를 가능한 많이 담으려고 노력했습니다. 또한 문체부에서 키워드로 내세우고 있는 지역사업 그리고 기존 사업 중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업들이 이번 중기사업계획에 반영되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기존 사업에서 증액으로 13건 871억 원, 신규 사업으로 9건 425억 원을 발굴했고 세부적인 내용은 간략하게 다음 페이지부터 빠르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학창작육성 같은 경우에는 문학창작산실에서 한국문학창작다양성 확대를 위해서 장편소설 등의 작가지원을 증액하기 위해서 9억 원을 추가로 반영했습니다. 또한 문학주간 같은 경우에는 현재 서울 대학로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문학주간 프로그램을 전국 6개 권역으로 확대해서 개최하겠다는 내용으로 15억 5,000만 원 증액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그 아래 시각예술중견작가 및 지역미술관 지원 확대 그리고 예술로서의 건축 외연확장을 위한 사업으로서 기존에 있던 시각예술창작산실 예산을 증액하고자 하고요. 또 건축물자유표시구역에 있는 미디어아트를 손볼 수 있는 공간들을 활용하기 위해서 미디어아트창작지원으로 예산을 증액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예술로서의 건축의 외연을 확장하기 위해서 건축문화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돕고 지역 커뮤니티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새롭게 건축창작산실을 신규 요구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지역미술관을 대상으로 소장품 컬렉션 인프라와 전시활용 저조 지역의 미술관을 대상으로 권역별 컬렉션을 공동 수장고를 운영해서 같이 함께 관리하겠다는 사업. 그리고 그 소장품들을 활용한 전시까지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역미술관컬렉션활성화지원 사업이라는 신규 사업으로 100억 원을 추가 증액 요청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페이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연예술창작육성에서는 먼저 대한민국공연예술제 통합유형을 확대하고자 그리고 민간축제공모선정 후에 민간 중심의 조직위원회를 구성해서 공연예술 대표 브랜드로 육성하기 위해서 기존에 있던 대한민국 공연예술제 사업을 추가로 50억 원을 증액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기존에 중장기창작지원사업 참여 예술가들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서 단가 확대하는 내용을 반영해서 공연예술중장기창작지원도 33억 6,200만 원 증액하는 내용으로 담았습니다.

그리고 2009년에 개관해서 16년간 설비가 노후화되고 이에 따라서 안전사고 우려가 있고 첨단기술을 적용한 미래형 극장으로 변모하기 위해서 현재 대학로예술극장의 무대·기계 교체 예산으로 30억 원 요구하고자 합니다. 신규입니다.

다음은 글로벌창작역량 및 네트워크 강화입니다.

현재 재외한국문화원에 예술위원회가 함께 참여를 해서 현지에 예술가들을 더 육성하고 우리 예술가들이 해외로 진출하는 것을 돕기 위해서 예술위원회 직원을 3명 파견하는 것으로 2억 원을 요구하는 내용이고요. 그리고 베니스비엔날레 한국관 같은 경우에는 약 9년째 지원금 예산이 6억 원으로 동결되어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한국관 운영 지원금 역시 4억 원을 증액하는 내용으로 글로벌 네트워크 강화로 총 6억을 증액 요구하고자 합니다.

아래 창작공간지원활성화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19 이후 공연 활동 증가세를 고려해서 현장에서 수요가 많은 공연장 대관 지원 그리고 연습장 대관, 무대장비 임차 지원을 포함해서 총 133억 원 증액 요청을 하고자 합니다.

아래의 창·제작 매개 지원 같은 경우에는 단순히 창작지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창작품이 실제 대중의 접점을 확보하기 위해서 전문적으로 매개 활동을 하는 기획, 유통, 홍보, 컨설팅 등을 지원하는 단체를 개발하고 육성 지원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해당 내용으로 174억 신규로 담았습니다.

문화적지역활성화 같은 경우에는 인구 감소 지역의 문화콘텐츠를 공동 발굴 육성하고 개발해서 지역 활

성화에 기여 하는 선순환적 사업모델을 발굴하기 위해서 해당 사업 내용으로 31억 원을 신규로 반영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예술인력육성 같은 경우에는 기술을 활용한 창작활동을 원하는 청년예술가를 대상으로 기술접목, 기술자 네트워킹, 창작지원 등의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에이프캠프 관련 예산으로 현재보다 6억 7,000만 원 증액 요청을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아래의 현장예술인력육성 같은 경우에는 2024년까지 운영하고 있던 예술현장인력교육플랫폼인 ‘문화예술 내일’이 2025년 예산에 전액 반영이 안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다시 그 예산을 반영하고자 해당 예산 10억 원을 신규로 반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래 예술생활안정자금과 관광자원화 같은 경우에는 타 기관에 교부해서 시행하는 것이어서 이 부분은 넘어가겠습니다.

예술가치의 사회적 확산에서 예술정책실행력제고부분입니다.

공연전시 관람같이 문화예술 분야에서 소비가 이루어지거나 또는 공연, 전시 같은 것을 보고 사람들이 리뷰하는 문화예술의 활동에 대해서 이것을 더 활성화하기 위해서 마일리지 적립해 주고 마일리지를 다시 문화예술 분야로 지출할 수 있게 또는 문화예술 후원 기업에 상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하는 아이디어성 사업으로 아트마일리지 운영으로 20억 원 신규로 요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예술자료 수집 및 디지털화에서 지금 예술기록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홈페이지가 총 3가지가 있습니다. 그 3가지를 모두 분산해서 관리하고 있다 보니까 어려운 점이 있어서 이렇게 분산된 아카이브 및 예술기록물 데이터를 통합해서 새로운 디지털아카이브를 만들어서 데이터 품질을 제고 하고 데이터에 대한 이용자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사업으로서 예술기록물 통합 디지털 아카이브 시스템 구축으로 30억 원을 추가적으로 요구하고자 합니다.

아래 통합문화이용권과 청년문화예술패스는 정책적으로 내년도에도 통합문화이용권 증액 1만 원 그리고 청년문화예술패스는 현재 1인당 지원금 10만 원에서 최대 20만 원까지 늘리는 것으로. 그리고 지원인원도 현재 16만 명에서 25만 명으로 상향하는 것으로 반영하고자 문체부와 협의를 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각각 210억 원, 345억 원을 증액 반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말씀을 드렸고요. 아래 주요 증감 내용은 앞에 설명드린 내용들을 예산 증감 기준으로 정리한 표가 되겠습니다.

정병국 위원장 : 예. 본 안건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는 의견이나 질의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라 위원 : 간단한 건데요. 20페이지에 보면 건축물 자유표시구역 예술작품 활성화를 위한 것으로 써 주셨는데 한번 확인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건축물 자유표시구역이 아니라 옥외 광고물 자유표시구역이 정식 명칭으로 알고 있고요. 행정자치부 산하의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확인해서 정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성범 기획조정팀장 : 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류재수 예술지원본부장 : 옥외 광고물 자유표시 구역이 맞고요. 세부사업 내용에는 그렇게 되어 있고요. 중기사업계획을 요약하는데 기금 활용 등이 들어가다 보니까 표시가 그렇게 되었습니다.

정병국 위원장 : 예, 또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문모 위원 : 각 사업별로 정리를 하셨고요. 요청을 하셨는데 본부에서는 스스로의 지출 순위를 조정해서 어떤 건 더 증액을 했고 감소는 없는 것 같은데요. 예산이 한정되어있는 것을 갖고 지출 순위를 정하고 효과를 보게 하려면 원래 사업취지와 성과를 어떤 식으로 사업할 때 할 것인가? 그리고 처음에 사업을 기획할 때 구체적으로 어떤 목표를 갖고 할 것인가? 과연 무엇으로 할 것인가? 여러 가지 증액의

명분이 있기는 있지만 과연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가라고 했을 때 예상되는 지표 관리도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특별히 지표 순위가 높은 순위일수록 더 그런 게 중요할 것 같은데요. 그래야 나중에 사업이 끝나고 나서 관리가 효율적으로 되고 자원 낭비가 안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 때문이에요. 여기에 쪽 증액의 평균, 연간 평균 증가율을 해 놔 주셨는데 이것은 어떤 의미인가? 전년 대비도 아니고 5개년도 평균이라는 점도..... 그런 게 있고 마지막으로 여기에는 지출계획이 있고 수입계획이 있잖아요. 수입계획에서는 기금에 한정해서, 그러면 제가 자세하게 얘기하지 않고 들여다보고 저 혼자만 생각했는데요. 제가 항상 생각하는 게 기금은 증액이 안 되고요. 지속 가능성이 있어야 되는데 이 부분을 장기적으로 관리할 것인가 하는 안정성 문제. 사실 우리가 사업을 할 때 기금에 나오는 사업 말고도 후원금으로도 사업이 이루어지잖아요. 전체적으로 큰 그림에서 중기사업계획을 세울 때 그런 것을 한번 가늠해 보셔야 할 것 같은데요. 한정된 자원으로 증액만 한다고 해서 기금 전체가 늘어나지 않는데 계속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후원이든 뭐든 전체적으로 이 사업을 할 때 큰 그림을 만드셔서 지속 가능성부터 우리가 전략을 어떻게 세울지도 갖고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각 지출 순위가 있을 것이니까 그 지출 순위에 맞춰서 현재 성과지표가 사업별로 있는지? 없다면 만들어야 되고 관리를 해야 될 것이고요. 수입구조 역시도 기금의 안정성을 위해서 전체적인 자금 소스를 생각해야 된다고 봅니다.

정병국 위원장 : 예. 또 다른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라 위원 : 지금 중장기계획과 예산에 대한 것을 보다 보니까 ‘아트 앤 테크’에 대한 부분이 원래 굉장히 활발하게 예술창작 쪽에서 진행되었다가 그 부분이 정책적 방향에 따라 예술경영지원센터 쪽 사업으로 가면서 다원예술 쪽에서 일부를 하고 있는데요. 다 아시다시피 ‘아트 앤 테크’는 예술 창·제작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더욱더 다학제적인 기반이 필요하기 때문에 창·제작 사업의 기반이라든가 지원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시각다원예술 쪽이나 어느 쪽에서도 이런 ‘아트 앤 테크’ 창·제작 사업에 대한 고민이나 이런 부분들이 지금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것 같아서 이 부분이 많이 아쉽다는 생각이 들고요. 실질적으로 사업이 통으로 해서 갖기는 했지만 중요성을 감안할 때 시각예술과 다원예술 쪽에서나 중장기창작지원사업에서 창·제작 지원을 어떻게 할지? 다양한 장르의 예술과 기술의 결합을 어떻게 같이 가야될지? 이 부분을 놓치게 되면 예술 창·제작 지원의 굉장히 큰 한 덩어리를 놓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한 검토를 다시 한번 고민해서 올해 어떤 사업을 함에 있어서 반영할 수 있는 부분과 내년에 또 계획을 세울 때 이 부분은 꼭 반영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배은주 위원 : 질문드리겠습니다. 예술가치의 사회적 확산 부분에서 예술향유 후원 활동에 대한 마일리지 축적 및 이용제도 설계를 위한 아트마일리지 제도를 도입하신다고 했는데요. 이게 어떤 원리로 이렇게 진행이 되는지 설명을 들었으면 하고요. 그 다음에 통합문화이용권에서 항상 전년도에 불용된 금액이 쌓이고 있잖아요. 전년도 불용된 금액에 대한 누적금액 그리고 그것에 대해 리셋을 해서 다시 통합하는 부분들은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전년도 누적에 대한 합산금액이 나와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드립니다.

김성범 기획조정팀장 : 먼저 아트마일리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예를 들어서 건강마일리지 같은 경우도 내가 어떤 건강 활동을 하고 사이트에 들어가서 활동했다고 인증하면 마일리지를 적립해 주는 방식이 있습니다. 준법 마일리지 같은 경우도 내가 준법 활동을 했을 때 그 활동 내역을 인증하면 마일리지로 적립이 되는 케이스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술 활동에 참여한 시민들이 내가 어떠한 예술 활동을 했다는 것을 인증하는 방식으로 플랫폼에 올리면 그에 대한 마일리지를 적립해 주고 그 마일리지를 나중에 다시 예술 활동에 사용할 수 있게 연결해 주는 방식으로 진행하려고 만들었습니다.

배은주 위원 : 서비스를 이용할 때 방식은 QR코드로 한다거나 통합문화이용권처럼 한다는 원리가 있나요?

김성범 기획조정팀장 : 지금 중기사업계획은 아이디어를 모으는 것이다 보니까 여기에서 내용들을 정리 해서 2026년 본예산에 갈 때는 조금 더 디테일하게 짤 텐데요. 생각했을 때는 플랫폼에서, 예를 들어 예스24나 인터파크와 제휴해서 거기에서 티켓 구매가 이루어지게 하거나 또는 그 마일리지로 인터파크나 예스24에서 연결해서 결제할 수 있게 하거나 하는 방식인데 조금 더 고민을 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어떻게 사용자들이 더 편하게 접근할 수 있을지는 고민을 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복권기금 사용 같은 경우에는 복권기금법에 따라서 복권기금을 전입 받고 사용한 나머지는 다다음 연도에 모아진 것을 다시 복권위원회로 반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총금액은 제로를 만들어서 저희 쪽에는 남는 게 없게 됩니다.

배은주 위원 : 누적으로 사용한 % 통계가 있나요?

김성범 기획조정팀장 : 예. 매해 다르지만 대략 90%대에서 불용이 항상 생긴다고 보면 됩니다.

배은주 위원 : 90%요?

김성범 기획조정팀장 : 90%가 사용입니다.

배은주 위원 : 알겠습니다.

정병국 위원장 :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왕치선 위원 : 앞에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것에 덧붙여서 제가 가지고 있었던 궁금증을 하나 여쭙보겠습니다.

저희가 이 예산을 배분하거나 할 때 사무처에서는 다년간의 경험을 통해서 그런 것들을 배분하셨을 것 같은데 저희처럼 중간에 들어온 사람들은 앞의 스토리를 모르기 때문에 이런 배분이나 이런 사업의 설정을 보면 항상 궁금한 게 “이 사업이 과연 왜 시작했지?” 혹은 “왜 금액이 늘어났지?” 라는 부분에서 굉장히 의문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사업들에 있어서 사업 타당성 조사라든가 아니면 신규로 시작하는 사업이라면 의견수렴 과정이 충분히 있었는지? 그다음에 그 사업에 대해서 사업의 성과평가가 항상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궁금해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것들은 어떤 과정을 거쳐서 증액이 되고 사업이 설정되는지를 여쭙봐도 될까요?

김성범 기획조정팀장 : 예. 먼저 사업의 평가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문체부 또는 기재부로부터 계속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세부사업 같은 경우에는 보조사업 연장 평가나 재정사업자율평가 그리고 사업 전반의 경영까지 포함했을 때는 경영실적평가 등을 통해서 저희가 사업에 대한 증액 혹은 현재 하고 있는 사업비 규모에 대해서 적정성을 점검하고 그에 대한 결과로 예를 들어 보조사업 연장 평가 같은 경우에는 증액요구 또는 감액요구, 유지요구 등을 저희가 받고 실제 예산에 반영이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중기사업계획 같은 경우에는 사실 기재부로 제출하는 과정이지 기재부와 협의를 해서 뭔가 깎이거나 하는 케이스는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작년에 중장기전략을 개편한 이후에 방향에 맞춰서 최대한 신규 증액사업을 많이 내보고자 한 것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충분한 의견수렴을 드리지 못한 것은 죄송하고 앞으로는 조금 더 많은 의견수렴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2026년 본예산 수립을 할 때는 본 건 외에도 위원님들께서 제안해 주시는 내용들을 많이 반영해서 최대한 의견

수립 후에 본 예산 작업을 같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문모 위원 : 제가 말씀드리면,

정병국 위원장 : 잠깐만요. 왕치선 위원님 말씀 다 끝나셨나요?

왕치선 위원 : 지금 김성범 팀장님의 말씀 중에 신규 사업 같은 경우에 그 사업의 타당성 조사가 이루어졌냐는 질문에는 제가 아직 답을 듣지 못했습니다.

김성범 기획조정팀장 : 사업 타당성조사라고 하시면 이 사업을 추진하는 게 옳은가 그른가에 대한 것인가요?

왕치선 위원 : 그렇죠. 거기에서부터 기대하는 효과라든가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는 준비가 돼서 시작하는 게 아닌가요? 구체적인 키포트를 하기 전예요. 그래서 그런 과정이 늘 있는 건지를 여쭙보고 싶습니다.

김성범 기획조정팀장 : 당연히 사업예산을 수립하고 기재부로 제출할 때는 각 사업마다 사업목적과 기대효과 등을 사업별로 명시하고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타당성조사라고 하는 것은 하고 있지 않고요. 다만, 이것을 제출하는 과정에서 저희 정책 당국인 문체부와 협의를 거쳐서 최종적으로 확정을 짓고 기재부로 제출하는 과정은 있습니다.

왕치선 위원 : 그렇다면 제가 며칠 전에 대한민국공연예술제 조직위원회 키포트회의에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다른 위원님들과는 다르게 굉장히 늦게 들어왔기 때문에 이 사업을 한다고 했을 때 저는 “이것은 이미 이전에 다 결정이 된 것이고 우리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언급할 수가 없겠구나.”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21일 회의에서 보니까 “해 보는 거다.”, “변경할 수 있다.” 라는 말씀을 하셔서 “그러면 이것은 안 해도 되는 건가?”, “해도 되는 건가?” 라는 의문이 들었고요. “그렇다면 이 사업을 이렇게 하기 위한 충분한 준비와 의견수렴과 기대하는 그런 것들이 다 되어 있나?” 라는 의문을 가지고 집에 돌아왔습니다. 거기에서부터 이 질문이 촉발되었는데요. 그 사업 같은 경우도 그러면 지금 충분히 준비 혹은 의견수렴이 안 되었지만 “그냥 해 보자.” 라고 하면 하는 건가요?

정병국 위원장 : 공연예술축제 같은 경우에는 새로운 사업이 아니고요. 그동안 축제별로 해서 여러 가지로 쪼개져서 운영되던 사업이었는데요. 그동안 문화체육관광부의 입장, 정부의 방침도 그렇고 “이제는 그것을 묶어보자.” 그래서 규모를 키워서 규모 있는 축제로, 글로벌한 축제로 성장시켜보자는 의견들이 있어서요. 제작년부터 그랬죠. 그래서 작년에 관련된 단체나 관계자들하고 몇 차례 공청회와 토론회를 했습니다. “어떻게 묶을 것인가?” 그래서 공연예술축제에 전체적으로 배정된 예산이 78억이었는데 78억 중에서 다년지원을 지금까지 해 왔던 축제들, 결정되어있는 축제들로 2년이 남았거나 1년 남았거나 하는 곳들은 그 단체들이 동의하지 않으면 그냥 결정된 대로 2년이나 1년 남은 예산을 빼고 나머지 예산을 가지고 묶을 수 있는 것까지는 묶어보려고 해서 논의를 해 왔던 것이고요. 논의하는 과정 속에서 “누가 어떻게 할 것이냐?” 라는 문제를 가지고 결론을 내지 못했어요. 다만, 묶는 것에 대한 당위성에 대해서는 다 동의는 하지만 “어떻게 할 것이냐?” 라는 부분에 대해서 결론을 내지 못한 상황 속에서 현재 그 작업을 하고 있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다년지원으로 기결정된 예산을 빼고, 또 새롭게 어떤 성격상 차원에서 묶는 것이 더 비효율적이라고 판단되는 분야를 빼고 나머지 예산을 가지고 다 같이 묶어서 한번 해 보자. 그런데 묶는 것도 한꺼번에 모든 것을 결합하기가 어렵다고 하면 기간을 두고 우선 묶는 것을 전제로 해서 한번 만들어보자. 그래서 만드는 과정이나 이런 부분들이 자체적으로 그냥 예술단체들에게 맡겨 놓게 되니까 지지부진하고 진행이 안 돼서 우리 위원회가 처음에는

좀 주도적으로 참여해서 엮어주는 작업을 해 주자는 과정으로 보시면 됩니다.

왕치선 위원 : 예. 위원장님이 설명하신 것은 다 잘 알았고요. 저 같은 경우도 그래서 회의가 끝나고 나서 결정되는 과정에 대한 자료를 담당자에게 요청했습니다. 그러니까 앞부분에서 이루어진 일들은 이해를 해야 해서 그 부분은 요청을 한 상태인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부분의 사업들이 제가 느끼기에는 오면 “이런 것을 해 볼 겁니다.” 라고 하는 과정부터 시작해서 “의결을 해 주세요.” 이렇게 가니까 그런 데에서 저희가 놓치는 것들이 너무 많지가 않나 싶어서 그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정병국 위원장 : 예. 전반적으로 새로운 사업을 시작한다고 하면 지난해 것을 근거로 해서 올해도 마찬가지로 2~3월 중에 대국민 업무보고를 하게 됩니다. 지난해 것을 근간으로 해서요. 그 과정에서 분야별로 현장의 의견들을 수렴하고, 수렴한 것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기존에 짜놓았던 틀을 보완해서 최종적으로 또 공청회를 해서 그다음에 최종적인 안을 결정하고 위원회 의결을 거쳐서 내년 사업이 결정되는 절차를 밟게 되고요. 기존에 쪽 해 왔던 절차는 일반적으로 그런데 이런 회계연도 중에 여기저기서 이런저런 의견이 들어와서 새로운 것. 그러니까 이것은 예산이 편성되어 있지 않은데 한번 해 봤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나오면 실험적으로 그냥 해 보는 경우가 있고요. 그것은 극히 많지는 않습니다만 1년에 1~2건 정도 있어서 그 상황이 좋으면 그다음에는 정상적으로 예산편성에 들어가서 하는 방법으로 접근을 한다든지,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지원하는 사업들이라고 하는 게 사전에 어떤 평가만 가지고, 그러니까 창작지원이다 보니까 사전평가만 가지고 결과를 예측하기가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는 게 가장 중요하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왕치선 위원 :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늦게 들어와서 앞부분을 모르니까 참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문모 위원 : 위원장님 말씀대로 현장의 의견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런데 아무리 취지가 좋다고 하더라도, 현장의 의견을 반영했다고 하더라도 관리를 중간에, 최종적으로 뚜렷한 목표를 갖지 않고 관리를 하게 되면 감당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고, 왜냐하면 공장에서 물건을 생산하는 일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 우리가 어떤 것을 지표로 갖고 설정하고 관리할 것인가는 위원들이 같이 상의하고 현장의 의견을 반영해서 최소한 이 정도는 해야 되지 않겠나? 이게 맞을 것 같은데요. 왜 그러냐 하면 아까 각 사업에 대해서는 경영평가에서 한다고 하지만 경영평가는 큰 그림을 갖고 평가하는 거지 세부사업으로 하지는 않으니깐요. 그렇기 때문에 경영평가에서도 역시 어떤 반대의견이 나왔을 때 이런 단단한 사업설계를 가진 사업들은 얘기를 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으면 저 사람들은 저 사람들의 경영지표 잣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방어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을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다들 전문가고 현장 의견을 듣고 이 지표는 어떻게 할 것을 고민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정병국 위원장 : 예. 기본적인 안을 만드는 것은 사무처에서 만들지만 결국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것은 우리 위원님들께서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서 의견이 있거나 방향을 잡아주실 때는 적극적으로 말씀해주시면 그런 부분들이 해소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배은주 위원 : 저도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게 2025년, 2026년 중기사업이지만 저희가 3월부터 이 업무를 보게 되면 2026년도에 반영되는 것이고요. 2026년도를 목표로 했을 때 기재부에서 문체부에서 하는 일련의 스케줄이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오늘 이 회의에서 이 사업의 예산을 이해하면 우리 사무국에서는 3월부터 바로 문체부 그리고 기재부와 연결된 업무를 보실 것이고요. 그리고 이게 8월에 어느 정도 윤곽이 나온다는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예산을 가지고, 어쨌든 우리는 예산안을 올려야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렇게 안을 짜신 것이고, 이것을 가지고 결과적으로 어떻게 결정이 날지에 대한 윤곽은 8월에 나오는 거잖아요?

김성범 기획조정팀장 : 예, 맞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중기사업계획은 신규 증액사업의 풀을 만든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풀에 포함되어 있지 않더라도 필요하다 판단되면 말씀하신 것처럼 3~4월, 5월까지 문체부와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문체부(안)을 만들고 7~8월에 기재부와 협의를 해서 8월에 기재부(안)으로 확정되면 국회로 넘어가게 됩니다.

배은주 위원 : 예. 그래서 저희가 이 예산이 이대로 반영되는 것으로 알면 안 되는 것이고요.

김성범 기획조정팀장 : 예, 그건 아닙니다.

배은주 위원 : 그리고 사무처는 어쨌든 3~4월 중에는 이런 안을 반드시 제출해야 되는 의무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는 건데요. 그 사이에 변경된 안을 또 넣을 수 있다는 거죠.

김성범 기획조정팀장 : 예, 맞습니다.

배은주 위원 : 예, 알겠습니다.

정병국 위원장 : 오늘 중기사업계획(안)은 어떻게 보면 문체부의 우리나라 문화정책 전반에 대한 그림을 그리는데 우리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영역의 것을 여기에 담는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의 의견보다는 문체부 의견이, 문화정책 방향이 여기에 담겨져 있고 이것을 예산당국과 큰 그림을 그리는 작업의 기초(안)을 제출하는 것으로 보시면 되고요. 내년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 예산은 3월, 4월, 5월에 중점적으로 문체부와 1차적으로 협의를 하게 되고 문체부 합의가 이루어지면 합의된 안을 가지고 기재부와 협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재부와 협의해서 거기에서 확정되면 정부(안)으로 확정이 되게 되는 것이죠. 또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갑영 위원 : 지금 여기저기 보면 전국 6개 권역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어떤 근거로 6개 권역입니까?

김성범 기획조정팀장 : 지금 권역을 구분하는 것은 수도권, 강원, 충청, 전라, 경상, 제주로 6개 권역으로 보고 있습니다.

정갑영 위원 : 문체부가 이런 식으로 분류를 하는 것 같은데요. 예를 들어서 충청권, 경상권이라고 하면 경상북도와 경상남도가 있고요. 그다음에 전라도는 전라남도도 전라북도가 있고요. 그런데 강원은 인구가 적은데 하나의 단위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충청권에 충청남도도 충청북도도 세종이 들어가 있고요. 지금 이런 식으로 행정구역상, 인구분포 상 그리고 예술정책 수요 상 여러 가지 편차가 다른데 그것을 그냥 지도에서 나누듯이 경상, 충청, 전라로 해서 될 문제인가요? 원래 정책의 의도가 협력적으로 기초와 광역, 정부 등 이런 문제를 정교하게 반영하려고 하는 시도라면 실제로 수요, 현장의 인구분포 등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권역을 나눠야죠. 예를 들어서 협력관 1명이 나가 있으면 경상권 그 넓은 데를 어떻게 커버를 합니까? 또 경상남도와 북도에 서로 다른 광역재단이 있고 행정체계가 다른데 그렇게 될 일인지가 나는 의아하네요.

김성범 기획조정팀장 : 지금 강원권 같은 경우에는 서울 수도권과 같이 묶어서 하고 있고 지금 말씀해주신 것은 일단 지역을 기준으로 구분한 권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지역의 인구라든가 지역에 분포해 있는 예술가나 예술 활동을 기준으로 구분한 것은 아니고요. 말씀하신 대로 지역을 기준으로 구분한 권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갑영 위원 : 그냥 편의상 나눠놓은 것으로 보인다는 거죠. 제가 비난할 생각은 전혀 없어요. 여기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 국토발전계획이나 모든 것을 이렇게 처리하니까 그런데요. 굳이 어떤 지역의 협력체계를 만들어서 새로 시작한다면 이런 편의상 분류 방식을 따라가는 건..... 그러니까 예를 든다면 충청만 해도 수요가 훨씬 적어요. 또 서울, 경기, 강원을 묶어 놓는다면 굉장히 크고요. 그렇다면 파견되는 직원의 규모나 그 다음에 사무소의 규모는 같을 수가 없다는 말이죠. 그런데 그냥 6개 지역에 어떻게 한다고 하면 굉장히 편의적으로 자의적으로 나는 느낌이 들어서요. 이것은 문체부를 설득해서라도 이렇게 가면 안 될 것 같다는 겁니다. 내가 구체적으로 문체부가 이렇게 나눠놔서 성공적이지 못한 정책 사례를 봤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 예술위가 오히려 문체부를 정책적으로 설득해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느낌이 듭니다.

김성범 기획조정팀장 : 권역 구분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려는 역할에 따라서 다시 한번 구분할 수 있도록 해 보겠습니다.

정갑영 위원 : 예. 그리고 지역미술관 컬렉션 활성화는 수장고를 지원한다는 거죠.

정병국 위원장 : 문체부 방침이 지역문화 활성화라는 차원에서 현재 국공립을 지역으로 분산시키고 분점을 내고 있고 미술관이 있는데 미술관에 제대로 된 컬렉션이 있는 지방미술관이 없으니까 공동으로 컬렉션을 내서 지역에 그것을 돌려가면서 공동 활용하겠다는 정책인 것 같아요.

정갑영 위원 : 그러면 수장고를 하나 지었다고 칩시다. 예를 들어서 대구에 하나 지었다고 하면 소유 관계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정병국 위원장 : 그러니까 국립이죠. 국립으로 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정갑영 위원 : 어디나 건축물을 지으면 건축물의 소유가 따로 있고 운영이 따로 있다는 말이죠. 행정관 리감독도 다 다르고요. 그래서 우리 위원회가 컬렉션 활성화 수장고를 지원한다면 그냥 예산 지원을 통해서 지역자치단체나 지역미술관에 수장고를 짓는데 예산지원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공동 운영을 한다면 어떻게 되는지가 나와 있느냐는 얘기죠.

김성범 기획조정팀장 :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은 '연습공간지원' 사례를 기준으로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전국에 공연예술 연습공간을 만들 때도 유휴 공간을 활용해서 '아르코 공연예술 연습공간'을 만든 것처럼 그런 식으로 지역의 공간을 확보해서 그 지역에 공동 수장고를 만들고 각각 소유하고 있는 작품들의 관리를 저희가 공동으로 하겠다는 개념으로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갑영 위원 : 아니 제 얘기는, 그러면 수장고의 운영을 같이 하겠다는 건가요?

김성범 기획조정팀장 : 예.

정병국 위원장 : 지금 연습공간 같은 경우가 우리 예산을 가지고 만들고 일정 기간 아르코가 운영을 합니다. 아르코가 운영하다가 지자체에서 자립해서 할 수 있다고 하면 운영 주체를 그쪽에 넘겨주는 상황 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제안은 문체부에서 들어온 것인데 지금 구체적으로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에 대한 방향에 대해서는 서로 결정된 것은 없어요. 다만, 우리가 연습공간을 활용했듯이 그런 방식으로 지자체에서 자립해서 운영할 수 있는 단계가 되면 넘겨주게 되면 바로 돈으로 넘겨줬을 때보다는 효과가 더 있지 않겠느냐? 그런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연습공간지원' 성공사례를 보면서요.

정갑영 위원 : 여기에 2026년 100억이라고 되어 있어서 얼핏 보면 그냥 예산지원을 하는 것으로 보이는 데요. 만약 공동 운영이라고 하면 매해 수장고 운영비가 들어간다는 말이죠. 그 운영비를 공동 운영했을 때 예술위가 절반을 부담하겠다는 것인지? 그런 플랜은 있어야 되는 게 아닌가요?

류재수 예술지원본부장 : 연습공간 운영 방식으로 했을 때 그 공간이 안정될 때까지는 예술위가 조성비와 운영비까지 지원을 합니다. 그리고 기간이 도래되고 그 재단이나 미술관에서 안정적 운영이 가능하다고 하면 자율운영을 하는데요. 이것은 연습공간처럼 할 수도 있고 권역에 거점 미술관과 협력해서 할 수도 있고요. 방식은 이 예산이 확보되면 여러 선택지를 통해서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정갑영 위원 : 그러니까 제 얘기는 간단한데요. 공동 운영이라고 했을 때는 예산수요가 자꾸 늘어난다는 말이죠, 위원회가요. 그런 것을 위원회가 감당할 것이냐? 아니면 정부 정책의 일부라니까 처음에 시설지원을 할 때 명목 삼아서 지원하는 것으로 끝낼 것이냐? 그 문제입니다. 예산수요가 계속 늘어나는 것은 위원회에 좋을 게 하나도 없어요.

정병국 위원장 : 예. 그것도 잘 감안해서 향후 계획을 짜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각 위원 : 아까 말씀이 나왔지만 중기사업계획(안)이라는 게 문체부의 정책 방향을 많이 반영해서 실행다 보니까 이런 안이 나온 것 같습니다. 그것은 좋은데 문체부의 정책방향이 다 옳을 수는 없잖아요. 예술위원회가 추구하는 어떤 방향과 미스매치가 일어날 수 있는 여지도 많고요. 그래서 문체부의 어떤 정책 방향을 한번 우리 예술위의 입장에서 검토해야 될 필요성이 있고요. 이것을 조금 조정하는, 조정해서 그 안을 다시 수정하는 안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가령 21쪽에 문화적 지역 활성화에 31억 원이 증액되어 있는데 이것도 사실 지역을 대표하는 문화예술콘텐츠를 육성하겠다고 되어 있는데요. 지금 문체부에서 하는 게 지역대표 예술단체 지정사업을 예술경영지원센터를 통해서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은 예술경영지원센터를 통해서 하고 이것은 예술위를 통해서 이런 식으로 설정을 한 것 같아요. 이것을 그대로 받아서 하는 게 옳으냐? 아니면 이것을 예술경영지원센터로 넘겨주든가 아니면 그 사업을 우리가 가져오든지 해서 시너지 효과를 가져갈 수 있는 방안들. 그런 사업의 효과를 낼 수 있는 방안들을 우리가 내고 문체부를 설득해야지 될 것 같습니다.

또 신규 사업도 이렇게 보면 여러 가지 신규 사업들이 있는데요. 사실 재정 긴축기조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신규 사업들이 그대로 받아들여질 여지는 크게 높지 않다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사업 자체의 전체 안도 증액이 된다고 해서 올라갔지만 이것도 역시 그대로 수렴될 가능성은 굉장히 낮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신규 사업도 과연 우리 예술위의 방향과 맞는 사업들을 중심으로 해서 축소할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선택과 집중을 하는 그런 상황으로 갈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증액이 필요하다고 한다면 정말 왜 증액이 필요한지에 대한 논리. 성과라는 측면이 가장 많이 고려가 되어야 되겠지만 그게 정형적인 성과측정이 불가능하다고 하면 거기에 버금가는 성과를 나타낼 수 있는 것들이 제시가 되어야만 우리가 앞으로 중기사업을 예술위가 원하는 방향으로 끌고 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정병국 위원장 : 예. 또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다른 의견이 없으면 위원님들의 의견을 받아서, 제가 생각하기에도 지금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신 것이 우리가 중기계획(안)을 주도적으로 짜려고 하면 일단은 정부(안)을 우리가 받고, 좀 조기에 받아서 정부(안)을 우리 내부에서 충분한 토론을 거치고 현장의 의견도 듣고요. 그다음에 중기계획(안)을 짜는 것이 보다 실효성도 있고 현장밀착형 계획(안)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이게 보통 문체부와 협의하는 게 언제부터 협의를 해요?

김성범 기획조정팀장 : 저희에게 통보가 오는 건 1월 초에 통보가 와서 1월 말에 제출을 하다 보니까 2주 정도 앞두고 협의를 합니다.

정병국 위원장 : 그래서 일단은 안이 오면 협의하기 이전에 우리 내부적인 토론을 거칠 수 있도록 기간을 달라고 하고요. 내부적인 토론과 현장의 의견까지 수렴하는 기간까지 잡고 논의를 해서 그것을 문체부와 최종 협의하는 것이 문체부의 입장에서도 위험 부담이 없고 현장의 의견까지 수렴했다고 하는. 우리는 집행기관이기 때문에 우리는 대행을 해 주는 거니까요. 결국 그런 부분은 문체부에서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실무진과 협의를 하셔서 그런 절차를 앞으로는 밟도록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김성범 기획조정팀장 : 예, 알겠습니다.

정병국 위원장 :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의견에 따라서 원안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정병국 위원장 : 다음은 안건번호 1106호 2025년 인바운드국제협력강화 공모계획(안)입니다. 본 안건은 유병은 교류협력팀장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병은 교류협력팀장 : 2025년 인바운드국제협력강화 공모계획(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사업은 2025년에 신규로 편성된 사업입니다. 앞서서 계속 얘기가 나왔던 국가아젠다 중에 지역소멸 대응과 국제교류인바운드 역할의 강화라는 맥락 속에서 세부적인 장르 구분을 넘어서 다자간 협력구조를 만들고 서구 사회의 끌려다니던, 패러다임에 끌려다니던 상황들을 전환해서 한국에서 오히려 주제를 제시하고 국제적 담론을 형성하고 주도해서 실행하는 새로운 국제모형을 개발하려고 사업들을 준비하였습니다.

28쪽입니다.

해당 사업은 2024년 교류협력팀에서 직접 추진했던 소멸위기 대응 문화적 지역 활성화사업과 연계한 후속 심화사업이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2024년에 추진했던 6개 지역을 소재로 하고 있는 단체들이 대상이 됩니다.

사업 내용은 지역소멸 위기 이슈를 국내외 파트너와 협력하여 국내에서 추진하고, 국제적 예술 담론과 실행으로 풀어내는 중장기적 문화예술 프로젝트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29쪽입니다.

해당 사업에 대해서는 지난 381차와 387차 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보고를 드린 바 있습니다.

30페이지입니다.

6개의 단체 소재 지역을 중심으로 하되 프로그램의 확장이나 여러 가지를 고려했을 때 희망 시 타 지역과 연계도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집중 지원을 하기 위해서 1건으로 다년이나 단년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특히 지역과 연계를 했을 때는 기존에 진행하던 연례적 축제나 컨퍼런스 행사와 결합 돼서 사업과 오버랩이 될 수 있어서 이런 행사들은 안 되는 것으로 표기해서 나가려고 합니다.

31페이지입니다.

공모 추진일정입니다.

오늘 의결을 해 주시면 오늘부터 2월 26일까지 공모공고와 접수를 받고, 3월 중에 심의를 하고, 의결을 통해서 최종 발표를 할 예정입니다. 특히 해당 사업이 신규 사업이고 조금 입체적인 사업모델이기 때문에 현장에서 이해도가 낮을 수 있음을 감안해서 명절이 끝나고 2월 첫째 주에 개별적인 공모사업 설명회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병국 위원장 : 예, 본 안건에 위원님들의 질의나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승미 위원 :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아까와 맥락이 계속 같은데요. 지역 선정은 어떻게 이루어진 것인가요?

정병국 위원장 : 지난해에 말씀을 드렸다시피 선정위원회가 있었고요. 선정위원회가 이 건에 대해서는 현장실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직접 다 참여를 해 봤고요. 18억 원을 가지고 시작했던 사업인데요. 그러니까 지역소멸에 대해서 하라고 하니까 그런 예산을 쪼끔 나눠주고 이름만 붙인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뭘 할 것이냐? 그랬을 때 처음에 실무적으로는 1개 지역에 1억씩 배정해서 하자고 했을 때 과연 어떤 결과를 가져오겠는가? 1억을 가지고 지역소멸에 대응할 수 있도록 무슨 사업을 할 수 있는가 하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래서 이것을 선택과 집중을 해 보자고 해서 3군데를 처음에 선정해서 해 보자고 했는데 지역 간 균형에 대한 불만도 있을 수 있으니까 서브로 3군데를 더 하자고 해서 6군데를 결정해서 심사위원회가 구성되었고요. 심사위원회가 실질적으로 현장에 다 다니면서 실사를 했고 선정하는 전제는 지금까지 그렇게 각 부처별로 지역소멸에 대응하기 위한 여러 사업들을 했는데 현장에 나가서 보니까 전부 다 하드웨어 중심으로 되어 있고요. 그렇게 만들어진 하드웨어는 전혀 활용이 안 되고 있고요. 그래서 지자체의 전신적 효과만 내고 있다고 해서 그런 공간을 우리가 어떻게든 채워주는 콘텐츠 중심으로 나가보자. 그러기 위해서는 또 관에다가 주게 되면 그게 또 반복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지역에서 발을 붙이고 직접 활동하는 예술단체를 중심으로 해서 이 사업을 선정해서 주자고 해서 기준을 만들어서 선정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6군데를 선정해서 해 보니까 전국적으로 하나의 모델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상당한 성과를 냈고 처음에는 지자체와는 무관하게 시작했는데 진행되는 것을 보면서 지자체에서 예산까지 편성한 데가 2군데나 됩니다. 그러니까 상당한 성과를 낸 것이죠. 자체적으로 예산을 편성하게 만들었으니까요. 그런데 여기에서 끝나게 되면 그냥 끝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고 원점으로 돌아갈 수 있다고 해서 6개 지역을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사업들 중에서, 다 공모를 해서 하지만 그중에서 자투리 예산이 나왔을 때는 6개 지역이 관련된 사업을 할 수 있는 역량이 되는 데는 6군데까지 경쟁하고 그쪽에 나눠줘서 선택과 집중을 해 보자는 것입니다.

그런데 국제인바운드사업 같은 경우에는 하나의 사례로 만들어서 글로벌하게 공유를 하고 영국이나 일본을 보니까 지역소멸 사업을 여러 측면에서 하더라고요. 그래서 성공한 지역과 자매결연을 맺어서 계속 공유하고 교류하는 하나의 모델을 만들어보자, 글로벌한 모델을. 그래서 6개 지역 중에서 한 군데를 선정해서 이 사업을 해 보자고 해서 이번에는 설계가 그런 방향으로 되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서승미 위원 : 심사 같은 경우도 별도의 심사위원으로 구성이 되세요?

정병국 위원장 : 예.

서승미 위원 : 예, 알겠습니다.

구문모 위원 : 작년에 위원장님도 그렇고 실무진이 현장을 다 보셨다고 했는데요. 새로 심사를 할 때 서류심사만 하는 건가요?

유병은 교류협력팀장 : 위원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구체적인 심의계획(안)은 아직 올라가지 않은 상태고요. 저희가 필요시에는 현장답사 등을 병행해서 서면과 현장답사, 인터뷰 등으로 구체화 시킬 수 있습니다.

구문모 위원 : 예, 좋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그렇다고 하더라도 지금 2차 사업 같은 경우에는 국제교류에서 확장적인 성격을 갖고 있잖아요?

유병은 교류협력팀장 : 예, 맞습니다.

구문모 위원 : 그리고 기대효과를 생각하잖아요. 작년도에 비해서 다른 목적의 기대효과가 있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서류심사는 충분히 숙지가 되었을 것이고 현장은 만약 필요하다고 하면 필요성은 제 생각에는 국제협력에 대한 역량이 과연 있는지를 한번 체크해 봐야 될 것 같거든요.

유병은 교류협력팀장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구문모 위원 : 플러스 기대효과가 작년에 첫 번째 두 번째 가중치가 40%, 40%하고 하는 것은 좀 조정해야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기대효과가 이번에는 주목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대효과를 상향조정하면 어떨까 하거든요. 그리고 이걸 확대한 후에 다시 또 할 가능성이 있으니까 이것에 대한 기대효과와 성과 관리를 특정하고 피드백해서 다음 해에도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이번 사업에서는 기대효과와 비중이 20%보다는 더 상향 조정해야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그런 목적으로 하고 있으니까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유병은 교류협력팀장 : 예, 말씀 감사합니다.

정갑영 위원 : 그러니까 6개 지역 가운데 하나를 선정하는 거죠?

유병은 교류협력팀장 : 예, 맞습니다.

정갑영 위원 : 그러면 6개 지역이 이 사업에 대해서 이미 인지하고 있어요?

유병은 교류협력팀장 : 인지한 곳도 있고 아닌 곳도 있어서요. 오늘 의결이 되면 오늘부터 적극 홍보를 할 예정입니다.

정갑영 위원 : 왜 어디는 인지하고 있고 어디는 인지하지 못해요? 인지를 하면 다 같이 인지를 하고 있어야 되고 못 하면 다 같이 못 해야죠. 왜 어디는 인지를 하고 있고 어디는 인지하지 못하고 있어요?

유병은 교류협력팀장 : 작년에 6개 권역과 사업을 진행할 때 이러한 사업들이 진행된다고 말씀은 드렸습니다. 그런데 단체가 국제사업에 대한 관심도나 성숙도에 따라서 그 이후에 본인이 한번 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하신 단체도 있었고요. 그렇지 않은 단체도 있었습니다.

정갑영 위원 : 그 내용보다도 지금 보세요. 오늘 의결하면 내일부터 공모를 내서 2월 26일까지 마감해서 3월 중에 선정을 한다는 것 아닙니까?

유병은 교류협력팀장 : 예, 맞습니다.

정갑영 위원 : 그러면 구정 휴가기간 빼고 실질적으로 한 달입니다.

유병은 교류협력팀장 : 예, 맞습니다.

정갑영 위원 : 한 달인데 지금 다른 해외 파트너를 찾는 모양인데 한 달 동안 해외 파트너가 찾아진다

고 생각하세요? 미리 알고 있었던 데는 이것을 준비해서 했을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모르는 데는 한 달이라는 기간 동안 준비를 어떻게 합니까?

정병국 위원장 : 모른다는 것은 아예 모른다는 게 아니라 아예 이 사업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겁니다.

정갑영 위원 : 그렇게 말하는 것보다는, 나중에 공정성 문제에 대한 시비가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시간은 줘야죠. 이것을 안다고 쳐도 한 달 사이에 이게 된다고 생각해요? 교류를 많이 하셨으니까 알 텐데요. 접촉을 해서 상대 의사를 묻고 하는데 어떻게 한 달이 됩니까? 이것은 만약 감사가 들어가면..... 미리 알지 않으면 불가능해요.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정병국 위원장 : 그것은 중요한 말씀 같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해당 지역에 충분히 얘기하고 교류 파트너를 정하는데 시간이 어느 정도 필요한지를 고려해서 심사기일을 정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다만, 이 걸 처음에 설계하는 과정 속에서 현지에서 자체적으로만 역량이 불가능하다. 그래서 저희가 6개 지역도 어느 정도 성과를 낼 수 있었던 것이 그 지역에만 맡겨 놓은 게 아니라 심사를 담당했던 사람들이 그 이후에도 전담심의관 같이 들러붙어서 컨설팅을 계속해 줬던 겁니다. 그래서 결과가 나왔듯이 이 부분도 그래서 외부 단체를 포함할 수 있다고 조건을 넣은 이유는 외부 전문가그룹의 조언을 받거나 협업을 해서 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했고요. 또 별도로 우리 위원회에서 이 부분의 팀을 짜서 교류를 지속 가능하게 할 수 있는 전문가그룹으로 TF를 짜야 되는 상황입니다. 이 지역에만 그냥 맡겨 놓아서는 안 되고요. 다만, 지역은 지난 1년 동안 활동했던 결과물을 어떻게 글로벌하게 공유할 수 있느냐? 이 부분을 자체적으로 정리하고 그것을 확산하는 부분은 전문가그룹과 같이 해야 될 사업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정갑영 위원 : 이런 식의 사업을 진행했던 게 법정부화도시 사업인데요. 국제교류를 끼워 넣어서 2년차, 3년차가 되었을 때 국제교류로 한다고 하는데 계획서상으로는 다 됩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그 자체의 문제도 있겠지만 그것은 제가 여기에서 거론하지 않을 것이고요. 기간이 공정해야 된다는 것이죠. 누구나 다 알 수 있고 준비할 수 있는 기간을 주고 하자는 거죠.

유병은 교류협력팀장 : 예, 알겠습니다.

배은주 위원 : 보충해서 질문을 드리면, 지금 해외에서 예술단체 및 개인이 참여할 때 이 부분은 필수로 되어 있잖아요? 해외교류를 하다 보면 그쪽은 업무 속도가 우리나라와 차이가 있어서 해외사업과 관련된 자료가 필수라면 협약서라든가 초청장 등 문서 증빙이 공모사업 안에 들어가야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유병은 교류협력팀장 : 예, 위원님 잘 말씀해 주셨고요. 우리 지원신청서 내에 국내외 협력 파트너나 개인·단체들에 대한 그런 증빙서류들은 안에 제출되어 있도록 지원신청서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배은주 위원 : 해외 부분에 대한?

유병은 교류협력팀장 : 양쪽 다요. 국내외 다 마련되어 있습니다.

배은주 위원 : 그렇다면 그것이 한 달 정도로는 부족하다는 거죠. 왜냐하면 문서가 오고 협약을 하는 부분이 한 달로는 부족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공모(안)을 수정하거나 하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유병은 교류협력팀장 : 예, 알겠습니다.

정병국 위원장 : 또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본 안건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의견에 따라서 해당 부분을 수정해서 의결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5. 보고 사항

정병국 위원장 : 이어서 보고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보고안건은 2025년 지역예술도약지원사업 기본계획에 대해서 정창호 공연예술팀장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창호 공연예술팀장 : 2025년 지역예술도약지원사업 기본계획(안)입니다. 원래 의결을 받아야 되는데 사전에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고 의견을 듣고 그동안 지역문화재단과 협의했던 내용도 구두로 말씀드리면서 개선해야 할 부분은 개선해서 다음 달에 의결을 다시 받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첫 신규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제가 보고를 대표로 드리지만 문학과 시각예술, 공연예술이 같이 섞여 있고 문학, 시각예술, 공연예술의 사업 방식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가급적 공통적으로 맞추려고 노력했지만 작가지원이나 단체 지원에서 나오는 기본적인 차이점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염두에 두시고 보고를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39페이지입니다.

두 가지로 추진배경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문화예술진흥기금에 대한 비수도권의 신청률과 선정률입니다. 밑에 표도 나와 있지만 문화예술 활동의 수준은 비수도권도 어느 정도 %가 있는 반면에 문예기금 쪽에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약한 부분이 있는데요. 여기에서 더 나가서 사실은 문예기금에 대한 보이지 않는 벽으로 인해서 지역에 있는 단체들은 아예 신청 자체를 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실 그런 부분을 감안하면 이 부분에 대한 격차가 더 있어 보입니다.

두 번째는 지역체계 부분에서 정부의 정책기조를 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문체부 차원에서는 2023년도 12월 말에 저희 문화예술지원체계 공공기관의 역할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예술위원회 역할정립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었고요. 또 기재부 입장에서는 정부의 정책기조가 지역 연계를 하는 사업을 강화하는 방향을 계속 강조했습니다. 그 와중에서 아시겠지만 유사 중복군과 관련된 사업들이, 대표적으로 ‘신나는예술여행’이 되는데요. 그런 사업들이 의지와는 상관없이 폐지가 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런 관계 속에서 이 두 가지 요건을 만들어서 신규 사업을 제안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그림에서 보시면 핵심은 광역재단에서 1차 창·제작 지원을 한다면 이후 예술위원회에서 사장되는 창·제작 지원들의 결과물을 다시 한번 레벨업이나 스킬업 할 수 있는 기회를 줘서 수준을 상향하고 이후에 저희 문예기금에서 추진하고 있는 창작산실이나 창작주체사업들 아니면 예술경영지원센터나 코피스 사업으로 연계할 수 있는 사업으로 만드는 게 가장 이 사업의 핵심 역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40페이지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사업목적은 지역 내 기초예술 우수작품 및 활동을 후속·연계지원을 해서 국민문화향유 기회 확대와 함께 기초예술 성장 가능성 부분, 활성화를 도모하는데 있고요. 이게 지역예술도약지원이다 보니까 수도권에 제외가 됩니다. 그래서 수도권에 대한 정의는 차이가 있을 수 있겠지만 저희는 서울, 경기, 인천으로 3개를 제외하고 나머지 14개 광역문화재단 쪽과 함께 후속 지원을 하는 체계로 되어 있

습니다.

지원내용의 핵심은, 사실 일반공모를 하는 게 아니라 광역문화재단으로부터 문학이나 시각, 공연예술 쪽의 분야별 지원 이력을 보유한 작품이나 활동을 추천받는 구조로 되어 있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추천을 받으면 예술위원회에서 확산·성장 가능성을 심사해서 선정하고 이후에 예산이나 홍보, 컨설팅 등 직·간접 지원을 강화하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후속지원 같은 경우에는 작품의 재제작이나 작가의 재활동을 지원하는 재정지원을 포함해서 연계지원으로서 비평이나 홍보, 단체 운영 등의 전문가 자문 그리고 특히 지역에서 약점인 타지역 공연장이나 예술단체 교류까지 예술위원회가 갖고 있는 유무형의 인프라를 가장 많이 활용해서 레벨업 시킨다는 게 이 사업의 취지가 되겠습니다.

분야별 사업 추진내용을 보시면 문학 같은 경우에는 지역의 우수작가, 시각도 작가, 공연예술은 2차 제작·재공연 도약지원이기 때문에 지원을 받았던 단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원대상은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원 예산 규모는 문학 4억 원, 시각예술 7억 6,000만 원 그리고 공연예술분야가 35억 원 정도로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원 대상 규모의 사람 수를 보면 문학 같은 경우 약 25명이고 시각은 14명 그리고 공연 쪽은 30개 단체 정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사업 추진 일정은 오늘 보고를 드리고요. 당초에는 의결을 받고 사업설명회와 함께 공고가 나가려고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설문조사 의견을 같이 보고 드리면서 일정에 대해서는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41페이지에 나와 있듯이 이 사업의 기대효과는 예술위원회의 연계를 통해서 어떤 지역에 있는, 많은 잠재력이 있는 예술단체를 발굴하고 전국 단위의 예술단체로 발돋움 시킬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준다는 게 가장 핵심입니다.

그리고 문학 쪽과 시각 쪽, 공연 쪽을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42페이지입니다.

문학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4억 원 예산에 25명이고 우수한 프로젝트 같은 경우에는 추가 지원금 500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원대상이 작가 개인에게 주는 게 아니라 문학 분야의 기획운영 업체인 출판사, 에이전시, 기획사로 되어 있습니다. 작가 개인에게 주기에는 여러 가지 행정이나 관리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고요. 그래서 지원내용의 예시를 들어보면 사례가 있습니다. 출판사 같은 경우 후속작품 집필이나 발간, 홍보도 있고 기획사는 북콘서트나 공연, 전시도 있고요. 에이전시는 해외 진출의 발판을 마련하는 것도 되겠습니다. 2022년도부터 2024년까지 최근 3개년 동안 광역문화재단에서 지원을 받았던 작가가 대상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하나 특이한 점은 43페이지에 사업설명회가 있는데요. 작가를 추천받으면 바로 작가를 대상으로 심의하는 게 아니라 사업설명회를 열어서 추천 작가와 지원신청의 대상인 출판사나 에이전시, 기획사가 함께 모여서 매칭을 시켜주는 작업을 한 다음에 매칭이 되면 그 단체 기획사로부터 다시 신청을 받아서 지원을 하는 구조가 좀 특이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별도로 작가에 대한 심의는 없고 매칭이 된 결과에 대해서 심의를 한다는 내용이 44페이지와 45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간단히 말씀으로 드립니다.

시각예술 같은 지원은 마찬가지로입니다. 3개년 작가로 되어 있고 지원금은 7억 원에 컨설팅 등 매개지원에 6,000만 원이 잡혀 있는데 이 부분은 작가를 추천하게 되면 예술위원회에서 심의위원을 구성해서 인터뷰심의회까지 심사를 진행할 것이고요. 이게 선정되면 컨설팅 등 매개지원을 하는 컨설팅 업체에서 어떤 전시를 할 것인지를 이야기한 다음에 전시공간과 매칭을 시키고 사업집행은 기획자나 전시공간을 통해서 집행하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이 좀 특이한 부분입니다.

50페이지 공연예술 쪽을 보시면, 단체지원입니다. 단체지원이고 작품을 추천하게 되면 마찬가지로 2차 인터뷰심의회까지 진행할 예정이고요. 장르는 크게 연극·뮤지컬, 무용, 음악·오페라, 전통예술 등 4개 분야로 정리를 했습니다. 여기에서 하나 특이한 점은 54페이지에 ‘작품제작지원단’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컨설팅을 한다고 하면 지난 번에 말씀해 주셨는데 지역단체에서 거부감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작품제작에 필요한 부분이 무엇인지에 대해 의견을 받아서 그 부분을 정리할 것이고 선정단

체 대상으로 해서 거기에 맞는 전문가들이나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을 도와드릴 예정입니다. 아마 작품제작 과정에서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단체의 관리나 홍보 아니면 기타 단체들 간 교류 부분에 대해서도 요구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예산만 주면 아마 결과를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에 별도로 작품제작지원단을 운영하면서 작품 제작 과정에 참여하고 이후 공연을 2회에서 5회 반드시 유료공연을 하는 것으로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이 정도로 간단히 보고를 드리고요. 사실 지역재단 입장에서는 이게 협력사업, 추천이 가장 핵심인데 가장 큰 난제가 1월 20일에도 지역재단과 2차 회의를 했고 설문 조사를 받았는데요. 추천에 대한 부담감이 생각했던 것보다 매우 큼니다. 추천을 받지 못한 단체에 대해서 어떻게 자기들이 방어할 것인지에 대한 부담감이 좀 있고요. 그리고 자기들이 추천을 했을 때 예술 위원회에서 심사를 통해서 만약 안 된다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한 책임소재 부분에서도 부담감을 많이 갖고 있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해결이 필요해 보이고요. 아까 기간을 말씀 안 드렸는데 전체 광역재단 14개 재단이 2월은 심의로 너무 바빠서 2월은 도저히 불가능하다는 게 공통된 의견이라서 오늘 안건에 대한 보고를 드리면서 열개를 말씀드리고 의결은 2월 말 정도에 받아서 3월에 시행하는 것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관련해서 구체적인 의견은 문학, 시각, 공연예술 쪽에서 따로 받아서 완성도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병국 위원장 : 예, 위원님들께서 본 안건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훈경 위원 :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문화재단에서 추천하는 건데요. 혹시 지역마다 기획공연의 형태가 있고 제작공연의 형태가 있잖아요. 그리고 지역 내 민간단체의 공연들도 있는데 어떤 형태의 공연을 추천하는 것인지? 예를 들어 기획공연 같은 경우에는 지역콘텐츠나 지역 예술가들을 활용하기보다 타지역의 좋은 작품을 가져오는 경우가 대다수인데 그런 것도 포함해서 추천의 대상이 되는 건지? 추천 대상에 대한 제한이 어디까지 되어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또 하나는 선정된 팀들이 창·제작에 대한 지원을 하는데 사실 지역콘텐츠들은 수도권으로 들어와서 공연하는 것에 대한 요구사항이 되게 큰데 혹시 그런 사항까지 지원 안에 들어가 있는 것인지? 아니면 예산 안에서 그들이 별도로 진행하는 것인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정창호 공연예술팀장 : 알겠습니다. 첫 번째 건에 대해서는 일단 기획사업은 포함하지 않고 정식 공모로 해서 경쟁을 통한 사업만 해당이 되고요. 사업이 되게 여러 가지가 있고 소액다건이 있고 지역마다 너무 다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창·제작 지원사업 정도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작품에 대한 공연·제작을 지원했던 사업이 있고 특히 상주단체 사업 같은 경우가 대표적으로 포함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획공연은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공연장 같은 경우에는 수도권 공연을 희망하고 있는데 저희가 개런티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2회에서 5회의 유료공연은 반드시 해야 하는 조건을 걸면서 지역에 대한 공연장소는 한정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나중에 진행되면서 필요하다면 예술위원회 극장과 협의를 하든지 아니면 관련해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훈경 위원 : 제가 지난 회의 때 잠깐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극장에 우리 아르고 자체 공연을 빼고 남는 유휴기간에 지역단체들이 와서 공연할 수 있도록 고민해 달라고 부탁드린 적이 있었거든요. 만약에 이게 같이 진행된다면 그들이 그 예산 안에서 수도권으로 들어오고 싶다고 하면 저희도 극장의 남는 기간을 열어줄 수 있는 방법들을 같이 고민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류재수 예술지원본부장 : 공연장 관련해서, 특히 공연예술 같은 경우에는 서울에서 공연하기를 되게 원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서울문화재단 쪽의 문화예술교육센터 등 공간들이 많아지고 공연을 올릴 수 있는 공간들이 많아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재단과 협력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아르코예술극장 대관 심사를 했을 때 지역에, 특히 도립극단의 신청이 있었는데 이런 부분들이 민간공연예술단체의 활동이 우선이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은 사실 우선순위에서 높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극장 쪽에서도 이러한 지역의 우수콘텐츠에 대한 대관 방향 등도 함께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정병국 위원장 : 또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라 위원 : 관련해서 저도 이 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얘기만 들었고, “고민해야 될 문제입니다.” 까지만 얘기를 듣고 지금 처음 보게 되었는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지역문화재단에서 작가를 추천하는데 부담이 있고 추천한 작가가 선정이 되지 않았을 때도 부담이 있고 여러 가지 고민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얘기를 하셔서 저도 고민을 했었는데요. 지금 사업명이 ‘지역예술도약지원사업’ 이잖아요. ‘도약’이라는 의미. 도약지원을 어디에 방점을 둘 것인지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명시하거나 고민을 한다면 그 부분에 대한 것과 이 사업에 대한 성과지표를 냄에 있어서도 중요한 지점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사업에서 ‘도약’을 어떤 부분을 생각하고 우리가 지원하는 것인지? 그것이 명쾌하게 정리가 되면 이 부분을 만들었으니까 도약지원에 대한 지원사업에 의미를 둔다고 하는 부분이거든요. 예를 든다면 공연은 그렇게 하셨는데 시각예술 같은 경우에는 지역에서 계신 작가님들을 어떻게 지원을 했을 때 도약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는 혹시 고민해서 정리한 바가 있을까요?

구문모 위원 : 제가 덧붙여서 유사한 질문이니까 말씀드릴게요. 방금 김미라 위원님께서 추천에 대해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추천에 대해 광역문화재단에서 주관적으로 판단할 소지가 자기들에게 있는지 없는지를 고민할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독창성이다.’ 아니면 ‘창의성’이라고 하면 독창성이나 창의성을 어떤 기준으로 할 것인가? 그런 것을 세부적으로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전문성도 마찬가지고요. 예를 들어 전문성이 있다고 하면 수상 실적이 몇 편이 있는지? 그래서 우리가 판단할 때 체크를 해서 객관성을 조금 더 높일 수 있는 방향으로 해 줘야 저 사람들은 “내가 면피를 하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야 누구라도 심사하려는 의지가 있지 그렇지 않고 주관적이면 나중을 생각해서 회피할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도약이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도약은 사실상 기대효과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것을 통해서 도약한다. 그래서 도약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셔야 하는데요. 제가 기대효과로 쓴 것을 봤거든요. 내용을 보면 굉장히 어려워요. “활동성과가 예술현장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인가?” 이것을 판단하기 굉장히 어려울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조금 더 디테일하게 작성을 하시고요. 이것을 작성하실 때 여기에서 도약을 정책목표로 했다고 하면 그것에 대한 성과지표를 정해서 해 주셔야 괜찮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정병국 위원장 : 예. 시각예술팀장님 김미라 위원님 지적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 주시죠.

장다운 시각다원팀장 : 지역예술가들 지원 현황을 보면 지역문화재단에서는 지원단가 자체가 300만 원, 500만 원 등 굉장히 작은 금액들을 지원받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저희 지원을 통해서 조금 큰 덩어리의 지원을 하려고 하는데요. 14인 중에서 그래도 우수하다고 판단되는 분들은 1억 원 정도의 개인전을 서울 중심으로 열어드리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지역에서는 인지도도 있고 활동도 꾸준히 해 오셨던 분인데 비평적으로 혹은 현장에서 조망이 부족했던 분들의 경우에는 조금 제대로 된 개인전을 서울에서 열어서 조금 더 작품 세계를 확산할 수 있게 하는 부분들을 생각하고 있고요. 그런데 14인 모두 개인전을 하기보다는 3인 정도 집중 조망을 하고 그 외에 나머지 분들은 3,000만 원 정도 내외의 큰 금액으로 신규 창·제작을 한다거나 본인의 그동안 화합을 정리해서 출판으로 프로모션으로 할 수 있는 출판사업 등을 통해서 다음 단계로 작품 세계를 심화해서 구축하는 부분도 해 보려고 합니다.

정갑영 위원 : 궁금해서 드리는 질문인데요. 지금 말씀 중에 서울에서 열도록 한다고 했잖아요. 그게 현실적으로 그럴만한 이유는 있을 것 같기는 한데요. 만약에 위원회가 그런 식으로 정책을 하면 지역과 수도권 간에 격차를 줄인다는 게 정책의 기본 원칙인데 이것을 점점 더 심화시키는 결과로 간다는 비난에 직면할 가능성은 없을까요?

정병국 위원장 : 조금 이따가 답변하시고요. 김미라 위원님 말씀하시죠.

김미라 위원 : 지금 답변해 주신 부분으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이고 명쾌하게 고민을 더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만 더 들었습니다. 지금 팀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기존에 300~400만 원 정도를 지원했던 분에게 지역도약 사업으로 1억을 지원하게 되면 명쾌하게 그 부분에 대해서 무엇이 얼마나 도약이 되었는지를 정리해야지만 심사하시는 분들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지역에서는 인정이 되지만 제대로 된 조망이 안 되었던 분을 선정한다. “제대로 된”이라는 기준도 상당히 불분명하여 심사 위원들도 굉장히 본인의 어떤 아시는 바에 근거 기준이 약하다는 말이죠. 평가심사도 그렇고 추천도 그렇고 근거 기준이 굉장히 약하기 때문에 나중에 가서는 이 사업에 대한 여러 가지 비판이 나올 확률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전시 장소도 마찬가지로 전시의 성과도 마찬가지로 무엇을 어떻게 지원할지를 조금 더 구체적이고 섬세하게 사업을 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병국 위원장 : 이 사업은 지금 보고를 드리는 과정입니다만 우리 위원님들의 말씀을 들어보고 조금 더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지역예술도약지원사업이라고 하면 그러한 목표가 명쾌해져야 하고요. 그런데 우리 정갑영 위원님 말씀대로라면 지방에서 예술인들의 욕구는 중앙으로 진출하는 게 욕구인데 단순하게 중앙에서 공연을 하고 전시를 한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런 과정을 통해서, 그러니까 지금 지역을 순환시키는 사업을 예술경영지원센터로 가는데 이렇게 선정된 사업은 당연히 지역을 돌게 되고 더 나가서는 코퍼스를 통해서 해외로도 나갈 수 있게 하는 과정이 좀 디테일하게 짜여져야 되고요. 저는 기본적으로 공연예술 같은 경우 서울 공연을 다 바란다고 하면 우리 자체의 공연장도 거기에 배정해야 된다고 봐요.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는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지금 문제제기를 하신 위원님들도 포함을 하고 추가적으로 참여하시고자 하는 위원님들을 모시고 조금 더 디테일하게 논의를 한 다음에 안건으로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두 번째 보고안건인 2025년 미래세대 예술창작·향유 지원사업 <예술 더하기 수업> 추진계획(안)에 대해서 유병은 교류협력팀장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병은 교류협력팀장 : 2025년 미래세대 예술창작·향유 지원사업 <예술 더하기 수업>추진계획(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히 이 사업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에 대한 추진 경과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 8월에 혁신도시 학부모회 대상 현장 간담회를 추진했고요. 그때 빛가람초등학교에서 참여 의사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당해 연도 9월에 예술위원회와 빛가람초등학교가 양해각서를 체결합니다. 그리고 그해 10월에 ‘책 읽는 학교’ 프로젝트라고 해서 2개 학년에 3학급으로 우선 문학으로 해서 독서프로그램을 파일럿으로 추진하게 됩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호응도가 너무 좋아서 2024년도에 예술위원회 교류협력팀의 자체 기획사업으로 ‘예술 더하기 수업’이라는 신규 사업을 만들어서 그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예술 더하기 수업’ 추진계획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 총 2.8억 원으로 추진을 하였고요. 빛가람초등학교와 교류협력팀이 협력을 해서 정규 교과 수업과 연계해서 전교생 899명을 대상으로 다양한 수업들을 진행했습니다. 학년별로는 연극, 건축, 미술, 음악, 문학, 영화 장르로 수업을 진행했고요. 작년 11월에 성과공유회를 개최했고 거의 1,000명이 넘는 분들이 참여를 해 주셨습니다. 이 사업에 대한 결과를 나누시에서도 너무 만족하시고 모든 분들이 만족을 하셔서 나누시 혁신도시 발전기금 4억 원과 나누시 추경사업 1억 원 등 총 5억 원으로 2025년도에 6개 학교

를 대상으로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주시 발전기금 4억 원은 2025년부터 2028년까지 4개년 간 동일 사업에 배정된다고 나주시에 확인을 받았습니다.

사업 내용은 62페이지 하단 부분입니다.

올해 1월부터 12월까지 5억 원의 사업으로 진행을 하게 될 예정이고요. 작년에는 2.8억 원을 1개 학교의 전교생들을 대상으로 했지만 이번 나주시의 방침이 6개 학교를 진행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6개 학교에 대해서 전교생을 아우를 수는 없어서 6개 학교의 각 학년 1개씩 정해서 하나의 장르로 교육프로그램을 준비하려고 합니다.

대상 학교는 혁신도시 내 4개 초등학교로 빛가람, 빛누리, 라온, 한아름초등학교고요. 원 도심에서는 학생 수가 가장 많이 있는 남평초등학교와 나주초등학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 성과보고회 이후 12월에 나주시청과 미팅을 진행했고 지난 1월 10일 나주시청과 6개 학교의 교감선생님과 사업 세부 내용들을 협의했구요. 2월에 각 학교의 학교장이나 교감선생님과 학부모회를 통해서 세부적인 내용을 추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병국 위원장 : 예. 본 안건에 대해서 위원님들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갑영 위원 : 이 사업이 나주만 대상으로 하는 거죠?

유병은 교류협력팀장 : 예, 맞습니다.

정병국 위원장 : 이 사업을 시작하게 된 취지는 우리가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나주로 내려와 있는데, 나주나 혁신도시 안에도 여러 학교가 있지만 우리가 1개 학교를 선정해 예술 프로그램을 하고 지역에 변화를 줘야겠다고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지범적으로 했는데 그 효과가 나니까 다른 지역의 학부모들이 반발을 하고 시장한테 문제 제기를 하고 교육장에게 문제 제기를 하게 되니까 시에서 자체적인 예산을, 처음에는 우리보고 다른 학교도 해 달라고 해서 “우리가 다른 학교에 해야 될 사업이 아니다.” 라고 거절을 했더니 예산을 편성해서 시작하게 된 겁니다.

정갑영 위원 : 그러니까 두 가지가 궁금한데요. 하나는 일단 나주만 대상으로, 예산이 위원회에서는 안 들어가는 것 같네요?

정병국 위원장 : 이번부터는 안 들어가죠.

정갑영 위원 : 그러나 일단 위원회의 사업이니까 유사한 케이스가 인근 시군구에서 일어난다고 하면 위원회가 계속 접수하면서 할 것인가? 두 번째는 이 사업은 일단 내용으로 보면 전형적인 문화예술교육진흥원 사업이거든요. 이렇게 해서 나주는 특별히 하고 넘어간다고 쳐도 확대가 되는 경우에는 기관 간의 업무 중복과 충돌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정리하고 어느 선상에서 적정성을 찾을지를 생각해 보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정병국 위원장 :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고요. 일단 저희가 생각하는 것은, 여러 가지 불편과 비용을 감내 하면서 국가균형발전을 한다고 하면서 기관은 내려와 있는데 현실적으로 지역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거나 변화가 전혀 없습니다. 저는 모든 기관이 그렇게 가야 된다고 보는데요. 그 기관들이 그 지역에 어떻게 기여할 것인가를 생각하고 모색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다른 기관은 다른 기관이라고 하더라도 우리 아르코만이라도 이 지역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게 뭔가를 찾아낸 것이고요. 그런 과정 속에서 의외의 성과를 냈고 다른 학교까지 시작이 되었는데요. 이게 나주를 벗어날 수는 없구요. 지금 나주시청에서도 전체적으로 확산해 달라고 해서 그것은 그쪽에서 하는데요. 예산을 편성해서 하겠다고 하면 저희

가 교육진흥원으로 넘겨줘야 될 사업인 것이죠. 나주만큼은 우리가 계속할 수 있는 역량이 되니까 모델로 하나를 계속 설정해서 이것을 벤치마킹하도록 유도하려고 합니다.

서승미 위원 :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갑영 위원님이 말씀하신 게 너무 공감이 가거든요. 그리고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도 맞는데요. 이게 교육부의 늘봄 사업과도 너무 연계가 되고요. 기본적으로 아르떼 같은 경우에도 ‘예술 강사’ 사업이라든지 ‘예술로 탐구사업’ 이게 전형적인 모델이거든요. 똑같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약간 다른 이름과 성격으로 포함시키지 않으면 혼선이 오기는 올 것 같아요. 너무나 중요한 사업인 것은 확실한데 이런 부분이 좀 상충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역 기여나 어떤 차원에서 이름을 해야 하지 않을까?

정병국 위원장 : 솔직히 말씀드리면, 예술교육 강사 지원사업을 제가 국회에서 제안해서 만들었어요.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그게 형식적이고 지금은 아예 예산까지 다 잘린 상태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것은 필수적으로 우리가 예술진흥을 한다는 차원에서, 기초에서 특히 초등학교 아이들에게 예술적 향유, 체험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판단하는 사람인데요. 그게 안 되고 있으니까 “일단 여기에 불을 붙여주자.” 이게 결국 어떤 모델을 보고 학부모들이 그것에 대한 욕구가 강해지면 다른 지역에서도 안 하려고 해도 안 할 수가 없고요. 그렇다면 교육부가 하던 예술교육진흥원이 하던 할 수밖에 없도록 유도를 하자. 일단 혁신도시에 우리가 내려와 있으면 이 지역만큼은 우리가 책임지고 한번 모델케이스로 만들어보자는 취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유병은 교류협력팀장 : 참고로 조금 더 말씀드리면 이번 주 화요일에 아르떼와 미팅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교육진흥원에서는 2025년도부터 교과와 연계된 예술교육프로그램 ‘씨앗 학교’ 나 ‘예술로 링크’ 등은 폐지가 되었다고 합니다. 참고 부탁드립니다.

이훈경 위원 : 앞에 두 분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염려 사항에 대해서는 저도 충분히 공감하는데요. 한편으로 그래도 다행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학교예술강사 지원사업 같은 경우 올해부터 신규 강사를 모집하지 않거든요.

정병국 위원장 : 없어졌어요.

이훈경 위원 : 없어졌는데 최소한의 비용으로 학교와 예술강사가 쌍방으로 원하는 경우만 매칭을 해서 최소한으로 운영하고 있어서 서울 수도권에서도 그 요구사항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사라졌는데 지역에서 뭔가 방법을 찾아서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은 되게 좋다고 생각하고요. 조금 더 현장의 목소리. 학교나 학부모나 예술가들의 목소리가 높아져서 이게 다시 방법적으로 살릴 수 있는 방법의 원동력이 되어 준다면 되게 좋은 사업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앞에 두 분이 해 주신 염려사항은 저도 같이 공감하는 바입니다.

김진각 위원 : 형식은 사실 예술위원회 사업으로 되어 있지만 내용적으로 보면 올해부터는 사실 나주시에서 주관하는 사업으로.

정병국 위원장 : 우리가 협력해 주는 거죠.

김진각 위원 : 협력인데 협력의 내용이라는 게 사실은,

정병국 위원장 : 자체적으로 하게 되니까 예를 들어서 강사진. 그러니까 지금까지 다른 데에서 하는 것

은 예술강사로 선발이 된 사람들이 들어가서 강사 1인 차원에서 이루어졌는데 이것은 예술단체가 들어 갑니다. 예술단체를 매칭 해 주는 겁니다.

김진각 위원 : 저는 예술위원회의 사업이라기보다는 경영차원에서, ESG에서 S라고 하는 차원에서 접근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말씀하신 대로 나주라는 혁신도시, 지역에 국한해서 예술위가 기여 하는 차원에서 접근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정병국 위원장 : 예. 저는 청년문화예술패스 사업을 이쪽으로 돌려야 한다고 봐요. 160억 원이면 이 초 등학생들한테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교육을 할 수가 있고 잠재적 고객이 되게 만들 수가 있는데요. 그것을 제가 계속 문체부에 얘기를 했고 기재부한테도 얘기를 했는데 이게 정부의 공약사업이기 때문에 해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 사용률이 24%밖에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굳이 올해까지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뭔가 조금 힘들더라도 “모델을 하나 만들어보자.” 그래서 이게 계속 여론화가 되면 그쪽 으로 갈 수밖에 없게 만들어주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아닌가 싶어서 시작을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다른 의견 없으시면 본 안건은 접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정병국 위원장 : 세 번째 보고안건은 2025년 정책연구과제 세부추진계획(안)에 대해서 이제승 예술정책· 후원센터장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승 예술정책·후원센터장 : 2025년 정책연구과제 세부추진계획(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전체회의 때 정책연구과제 4건이 의결안건으로 상정되어 선정되었는데요. 당시 연구 내용이 개 요만 있어서 구체적인 내용을 보고해 달라는 요청이 있어서 보고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4개 과제 중에 먼저 첫 번째 장르별 문화예술생태계 파악을 위한 실태조사 연구는 작년부터 예술위원회 최초로 다년간 그리고 전 장르를 포괄하는 연구로 시작이 되었고요. 올해 예산은 1억 6,000만 원에 관리 전담자는 한하경 책임연구원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1차 연도 질적연구에서 도출된 문화예술생태계 주요 이슈와 현황을 기반으로 올해는 양적 분석을 수행해서 작동 메커니즘을 실증적으로 파악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올해는 지원체계 개편과 관련된 시사점을 도출하려고 하고요. 작년에는 장르별 위원님들이 많이 참여하셔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올해는 장르 외 위원님들도 참여하셔서 조금 더 개선방안에 좋 은 시사점이 나올 수 있도록 연구를 추진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과제는 문화예술위원회 지원심의제도 책임성 확보 방안입니다. 정갑영 위원님이 제안해 주신 연구였고요. 올해 연구관리 전담자는 나혜영 수석연구원 그리고 예산은 2,500만 원을 배정했습니다. 이 과제의 내용은 지원심의제도의 책임성 진단을 위한 프레임워크 설계 그리고 이해관계자 의견수 렴 그리고 책임성 실현을 위한 적용 방안 도출입니다.

그래서 프레임워크 설계에서는 지원심의 책임성이라는 것의 개념, 핵심 원칙, 적용 범위 및 항목을 검토 해서 쟁점사항을 도출하게 되고요. 이것을 바탕으로 해서 이해관계자 의견수렴을 한 이후에 실질적으로 책임성 확보를 위한 적용 방안을 도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과제는 문화예술 신규 통계개발 사전연구입니다.

연구관리 전담자는 김기용 차장이고 예산은 4,800만 원입니다.

저희가 지금 ‘문화예술활동현황조사’ 라는 통계를 계속 내고 있고요. 국가 승인을 받은 지 10년이 되 었는데 이후에 전혀 신규 통계개발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업과 관련된 적합한 신규 통계를 개발하기 위한 것이고요. 관련해서 문체부와 광역 시도 문화재단, 타 부처의 통계 같은 분석 비교를 통해 서 신규 조사가 필요한 통계 항목을 제시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저희가 통계 설계안을 마 련하려고 하고요. 특히 중요한 것은, 사실 내부에서 통계관리프로세스가 잘 구축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

래서 신규 통계개발 연구를 통해서 저희 내부 인프라구축(안)도 포함해서 검토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 하고 있는 국가승인통계 ‘문화예술활동현황조사’의 개선방안도 함께 도출해 보려고 합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네 번째 과제는 문화예술의 새로운 가능성 ‘창작과 성장의 조화’ 였고요. 구문모 위원님이 제안해 주신 과제입니다. 지금 과업지시서를 만들면서 조금 더 예측가능한 연구로 구체화하기 위해서 제목을 약간 바꿔봤습니다. ‘예술지원 가치측정 모델 개발 및 사업 효과성 실증 연구’입니다. 연구관리 전담자는 조강주 책임연구원 그리고 예산은 2,500만 원입니다.

이 과제는 크게 세 가지로 예술지원사업의 기능별 분리 및 이용자 경험체계 정리 그리고 국내외 예술지원사업의 가치측정 모델 검토. 그리고 이를 통한 예술지원기관 사업 효과성 분석모형 개발 및 실증분석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과제에서는 미국이나 영국 등 주요국 예술지원기관의 예술사업 가치측정 모델을 검토하게 되고, 아울러 관련된 국내 기관들의 사업도 검토를 하게 됩니다. 이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저희 예술위원회 지원사업에 적용 가능한 사업 효과성 분석 모델을 제시하려고 하고요. 지원사업과 관련된 개선사항도 제시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4가지 과제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오늘 보고를 드렸고요. 그 외에도 자체 수행을 하려는 과제들이 또 있습니다. 이 부분도 계속 추진하면서 관련된 위원님들과 계속 협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병국 위원장 : 예. 본 안전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문모 위원 : 예술지원 가치측정 모델 개발 및 사업 효과성 실증 연구가 조강주 박사와 계속 상의를 해서 구체적으로 우리 문예위에 적용될 수 있는 것을 개발하고 있는데요. 얘기 과정에서 여기에 보면 조세연연구원, KDI, 선행연구 등의 얘기가 나오고 NEA와 ACE가 나와 있는데요. 그것보다 조금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는 건데요. 가치측정 모델은 크게 거시적으로 보는 게 있고 미시적으로 보는 게 있는데요. 거시적으로 보는 것은 우리 위원회한테 학술적으로 도움이 되지만 위원회한테 도움이 안 된다고 의견이 모아져서 가치측정보다 재정적인 측정과 비재정적인 측정 등 2개로 나뉘어서 비재정적인 측정은 사회가치나 문화가치적으로 지표를 만드는 것이고요. 재정적인 지표는 관람료나 유료관객의 수 등 실무적으로 하는 것을 재정적인 지표로 설정해 놓았습니다. 보시면 이 내용이 추상적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 부분을 조강주 박사와 실무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살펴보자는 것을 합의한 상태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병국 위원장 : 예. 또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의견이 없으면 본 안전도 접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정병국 위원장 : 네 번째 보고안전은 2025년 예술가치확산 소위원회 9차 회의 결과에 대해서 김진각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각 위원 :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안전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지역 중심 예술·기업 동반성장 지원사업이고 두 번째는 올해 문화예술후원 연중 캠페인 추진 안전인데요. 사실 두 가지 안전도 중요한데 첫 번째 안전이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후원활성화를 위해서 올해 40억 원이 새로 배정되었습니다. 그래서 40억 원을 어떤 용도로 써야 되는가에 대한 고민을 하다가 나온 안이 첫 번째 안전입니다.

첫 번째 안건 중에서 트랙1과 트랙2로 되어 있는데요. 여기에는 정리가 안 되어 있는데요. 지역 중심의 예술·기업 동반성장 지원사업은 광역하고 기초문화재단에 공모사업을 통해서 지원해 주는 안인데요. 그래서 문화재단과 후원이 약정된 사업들을 예술위에서 매칭 지원하는 개념입니다. 그런 것을 통해서 기업들이 민간에서 후원을 유도하는 그런 효과를 거두자는 차원에서 이 안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 후원이 약정된 문화재단에 대한 현황이 잘 파악이 안 되는 상황에서 사업에 대한 매칭이 원활하게 이루어져서 지원이 되겠느냐는 문제 제기가 있었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을 사전에 파악해서 추진하는 게 옳지 않느냐는 의견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추진을 할 것입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안건은 문화예술후원 연중 캠페인 추진(안)인데요. 이것은 여러 가지 내용이 있지만 가장 중요하고 새로운 내용은 통합 브랜딩의 하나로 주요 매저 매체와 손을 잡고 연중 후원 캠페인을 벌이는 안입니다. 그래서 5월부터 11월까지 후원 로드맵이 제시되어 있고 그 일정에 따라서 여러 가지 행사들을 추진하는 안입니다. 그런데 주요 언론사를 어떻게 잡느냐가 필요할 것 같고요. 연중 기획이기 때문에 사실 5월부터 시작하려면 미리 접근을 해서 매저 매체와 연결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그리고 관련된 설게도 좀 정교하게 제시가 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아트포레스트페스티벌이 후원 관련된 중요한 캠페인인데요. 올해는 조금 더 대중성을 확보한다는 차원, 조금 더 많은 팬들이 후원에 동참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는 차원에서 기획사, 대중음악을 하는 기획사와 손을 잡고 기획사 출신의 아티스트들을 초청하는, 그래서 그런 아티스트들을 라인업에 일부 구성하면 훨씬 더 많은 예술후원을 유도할 수 있지 않겠느냐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그 정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병국 위원장 : 예. 본 안건에 대해서 위원님들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문모 위원 : 우리 김진각 위원님께서 설명하신 의의를 말씀드리면, 문화예술 후원 기업들을 살펴봤을 때 유감스럽게도 대중문화 쪽의 기업들이 후원실적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대중문화 쪽이 기초예술을 도울 수 있는 방안에 현실적으로 드러난 게, 김진각 위원님께서 팔을 걷어붙이고 하시겠다고 얘기를 하셨고요. 그래서 소위원회에서는 정병국 위원장님도 동원해서 하자는 얘기도 있었습니다.

정병국 위원장 : 예, 좋은 의견입니다. 후원은 아니고 지역주민과 우리 회원들을 위한 음악회를 골프장에서 했잖아요. 그런데 첫째는 홍보가 별로 안 돼서 안 되었는데요.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골프장을 가지고 있으면서 골프장을 활용한 후원 행사를 못 한 것 같아요. 그래서 후원금을 모금하기 위한 골프대회를 하는 건 어때요? 그리고 골프대회가 끝나고 나서 음악회를 하게 되면 어떨까요? 그래서 하루 날을 잡아서 하면, 골프를 치는 사람들은 돈이 있는 사람들도 많고요.

김진각 위원 : 하루 통째로 빌려야 하기 때문에 회원들을 설득하는 게 가장 중요할 겁니다. 회원들이 동의를 안 하면 할 수가 없어요.

정병국 위원장 : 쉬는 날 하면 되죠. 그러니까 풀로 다 쓰는 게 아니니까요. 한나절만 하고 나머지 후반부는 음악회를 하면 되는 거죠.

김진각 위원 : 참고로 서원벨리CC에서 매년 한번씩 공연을 하거든요. 거기에서 후원금은 아니고 기부금을 모아서 골프영재들에게 지원을 해 주는 건데요.

정병국 위원장 : 우리는 처음부터 문예진흥기금을 마련하기 위한 골프장이기 때문에 명분도 있고 작년에 음악회를 한번 했거든요. 클래식으로 했는데 이번에는 골프대회도 하고 골프대회가 끝나면 지역주민

들을 초청해서 음악회를 같이 하면 의미 있는 행사가 되지 않을까? 그리고 후원금도 많이 거둘 수 있는 방법이 될 것 같아요.

김진각 위원 : 그렇게 하려면 사전에 뉴서울CC 회원들에게 레터를 보내서 행사의 취지를 설명하고 사전에 동의를 얻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정병국 위원장 : 실질적으로 회원들 중에서 정기후원을 하는 사람들이 꽤 됩니다.

김진각 위원 : 법인도 많아서요.

정병국 위원장 : 한번 그것을 기획해 보세요. 그러니까 방향을 잡아 주시면.

김진각 위원 : 지금 아이디어가 나왔는데요. 서승미 위원님 아이디어인데 골프를 치는 아티스트들. 그러니까 아티스트 골프대회를 하는 거죠.

정병국 위원장 : 그러니까요. 1명씩 매치를 시켜주면요.

김진각 위원 : 그게 오히려 낫겠네요.

정병국 위원장 : 좋을 것 같아요. 그것에 대한 방향을 한번 잡아주세요. 본 안건에 대해서 더 이상 의견이 없으면 본 안건도 접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정병국 위원장 : 차기 위원회 일정 안내입니다.

(회의 일정 조정)

6. 폐 회 선 언

정병국 위원장 : 그러면 2월 위원회 전체회의는 2월 28일 오후 2시에 아르코미술관 3층 세미나실에서 개최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89차 위원회 전체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2시 18분 회의 종료)